문과생 기획자의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리터러시 실험기

생각의 **출발**

인간 vs. 인공지능

로(Raw) 데이터를 활용해
표, 그래프, 시각화 하며 **자동화 할수록**
[패러다임의 함정]

게다가, **진입장벽**

수많은 생성형 AI

챗GPT/Bing 챗/Claud/구글 Bard/Julius…어느덧,

[Tool 같기도, Task 같기도]

사고의 전환

특정 분야의 전문가
특히,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경제 전문가를 가이드로 활용



오용하거나 **특권화** 하는 **고급 데이터**를
올바르게 공유할 수 있다면?

How To?



프로모션 **Approach**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해석 -> 데이터 해설

인생의 **새로운 시작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는 **도전**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상상멘토**가 되어 주세요

[상상기부 프로젝트]

STE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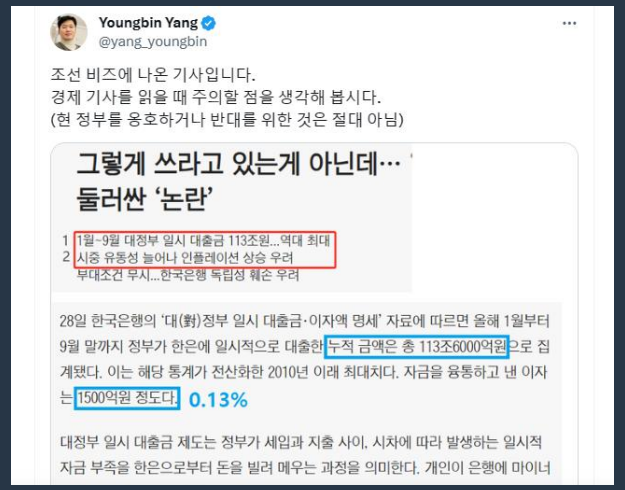
경제 기사 데이터 활용에
Break 걸은 저널리스트 관점 활용
요점 정리 요청

STEP 02

중2 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더 해설/풀이 요청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그렇게 쓰라고 있는게 아닌데… 둘러싼 '논란'

1 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역대 최대
2 시중 유동성 늘어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부대조건 무시…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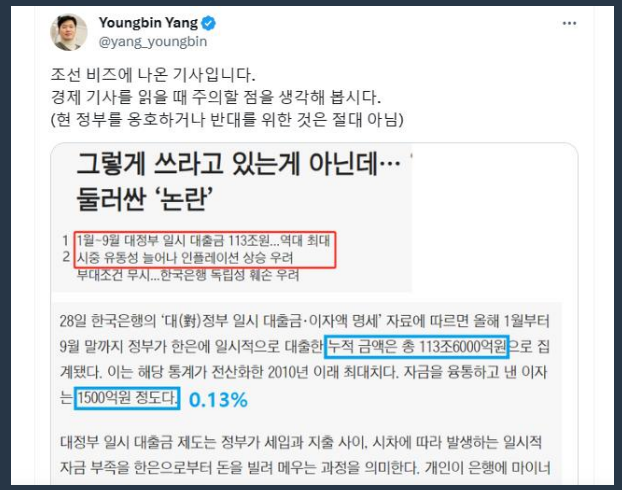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다.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 정도다. **0.13%**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쓰고 갚는 구조와 비슷하다.

올해 정부가 쓴 대정부 일시 대출금 누적 금액을 단순히 나눠보면, 한 달간 약 10조~15조원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 평균잔액이 5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융통 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월말 잔고가 찍히지 않도록 수시로 빌렸다 갚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증권 평균잔액은 9월 기준 9조원 정도다.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SNS (X)



Youngbin Yang
@yang_youngbin

조선 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님)

그렇게 쓰라고 있는게 아닌데… 둘러싼 '논란'

1 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역대 최대
2 시중 유동성 늘어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부대조건 무시…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다.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 정도다. 0.13%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

1 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 역대 최대

이런 제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113조원을 대출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방식의 맹점은 레포시장에서 매일 1억씩 대출받고 상환하는 금융기관을 생각해 보면 금새 드러납니다.

금융기관 A는 매일 1억씩 일년간 오버나잇 레포로 대출/상환을 반복하고 또한 개인 Y는 1년간 1억을 대출받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개인 Y의 일년간 대출 금액은 1억이 됩니다. 그러데 금융기관 A의 일년간 '누적' 대출금은 얼마가 될까요?

휴일도 대출일로 보면 A의 누적 대출금을 365억원이라고 계산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적 대출금을 113억6000억원으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물론 조선비즈 기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를 썼겠지만 이런 식의 계산은 실체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3 싸구려 애국심도 이제 그만!!

>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국채 매도, 통안채 발행 등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인플레이션 조세'와 같다" 지적했다.

정부의 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걱정합니다. 우리나라 8월말 기준 본원통화는 266조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누적 113조6000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의미없는 수치인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5조8000억원은 본원통화에 비하면 2.2%로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2 어그로 기사는 이젠 그만!!

그런데 기사 중간에 낸 이자금액은 1500억원이라고 밝힙니다. 계산해 보면 113조6000억원의 0.13%에 불과해 정부가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사 중간에 평균 잔액이 5조8000억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지급은 원금의 2.6% 정도이고 얼추 현행 금리로 봤을 때 수긍이 갈만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평균 잔액입니다.

정부가 급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땡겨 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 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SNS (X)

Youngbin Yang
@yang_youngbin

조선 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님)

그렇게 쓰라고 있는게 아닌데… 둘러싼 '논란'

1 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역대 최대
2 시중 유동성 늘어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부대조건 무시…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다.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 정도다. 0.13%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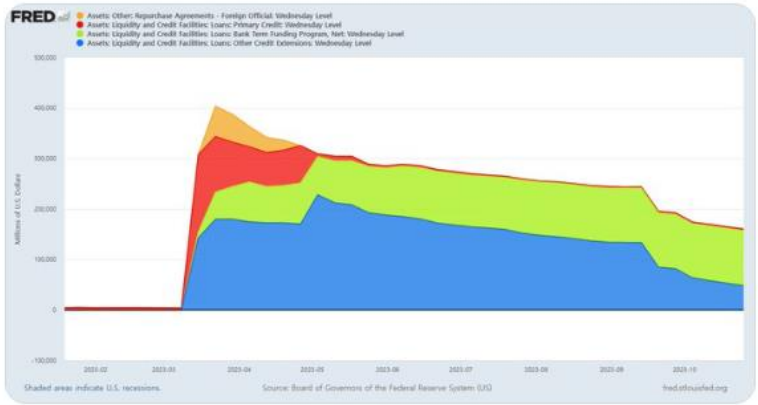
---

4 연준은?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다. 일본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한은 차입 대신 재정증권 발행을 독려한다.

연준은 이미 3월 은행위기 당시 정부에서 문제가 된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때 '브리지뱅크론' 형태로 재무부에 최고 2280어달러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3월 은행위기 당시 정부에서 문제가 된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때 '브리지뱅크론' 형태로 재무부에 최고 2280어달러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이 바로 브리지뱅크론이고 재무부는 점점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다고 무턱대고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잘 따져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Case of Claude

STEP 01

안녕, 나는 요즘 경제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그 중에서도 양영빈 기자의 sns글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다음 글은 그 중에 하나야.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해줄래?

[다음 글 전문] 그리고 기사 중간의 이미지는 순서대로 파일 첨부할게

조선 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님)

1□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 역대 최대

이런 제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113조원을 대출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방식의 맹점은 레포시장에서 매일 1억씩 대출받고 상환하는 금융기관을 생각해 보면 금새 드러납니다.

금융기관 A는 매일 1억씩 일년간 오버나잇 레포로 대출/상환을 반복하고 또한 개인 Y는 1년간 1억을 대출받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개인 Y의 일년간 대출 금액은 1억이 됩니다. 그러데 금융기관 A의 일년간 '누적' 대출금은 얼마가 될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영빈 기자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1월~9월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금 누적 액수가 113조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 그러나 이 누적 액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1억씩 대출받고 상환하는 경우, 1년 누적 액수가 365억원이 되는 것처럼 정부도 매일 대출받고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3. 중요한 것은 연간 평균 대출 잔액인 5조 8,000억원입니다. 이는 113조원의 0.13% 수준입니다.
4. 연간 이자 지급액 1,500억원도 5조 8,000억원 기준 2.6%로 적정 수준입니다.
5. 누적 113조원이 과대포장된 수치라는 것을 본원통화 266조원과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6. 미국 연준도 은행 위기시 정부에 대규모 융자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일시 대출은 누적 액수 대신 연간 평균 잔액을 봐야 하며 그 규모도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 Retry

출처:엠브레인/n=2000명(2017.04)

STEP 02

고마워. 요점 정리가 잘된 것 같애. 그런데 조금더 욕심을 내보자. 나는 이 내용을 경제지식이 거의 없는 중학생 조카에게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한국(south korea)에서는 보통, '쉽게 설명한다=중학교 2학년 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라고 표현하기도 해. 중학교 2학년 2학생 알아듣기 쉬운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레벨 체크를 한 뒤, 위에 기사 내용을 그들 수준에 맞제끔 다시 해설을 해주면 좋겠어

김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의 총액이 113조원이라고 해서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113조원은 1년 동안 계속 빌리고 갚았던 돈을 모두 합친 거라서 실제로 정부가 빌린 돈은 그보다 훨씬 적어.

예를 들면, 매일 1억원씩 빌리고 갚는다면, 1년 뒤 총 빌린 돈은 365억원이 되지만, 실제로 빌린 적이 있던 돈은 1억원밖에 안 돼.

정부도 한 번 빌리고 갚고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로 빌린 돈을 알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평균으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해. 그걸 보면 약 6조원 정도 밖에 안 빌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출저:엠브레인/n=2000명(2017.04)

Case of Bard

STEP 01

지희

안녕, 나는 요즘 경제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그 중에서도 양영빈 기자의 sns글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다음 글은 그 중에 하나야.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해줄래?

[다음 글 전문]

조선 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님)

1□ 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 역대 최대

이런 제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113조원을 대출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방식의 맹점은 레포시장에서 매일 1억씩 대출받고 상환하는 금융기관을 생각해 보면 금새 드러납니다.

출저:엠브레인/n=2000명(2017.04)

안녕하세요,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양영빈 기자의 SNS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누적 대출금은 의미가 없다

조선비즈 기사의 제목은 "1월~9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113조원... 역대 최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13조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적 대출금을 계산한 방식의 맹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매일 1억씩 대출받고 상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1년간 1억을 대출받은 것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일년간 누적 대출금은 365억이 됩니다. 이는 휴일도 대출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조선비즈 기사의 대정부 일시 대출
환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입
부터 113조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닙

2⃣ 이자율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선비즈 기사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13조원을 대출받아 이자만 1500억원을 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113조원의 0.13%에 불과해 정부가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평균 잔액은 5조8000억원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0.26%로, 현행 금리로 봤을 때 수긍이 갈만 합니다.

결국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땡겨 쓴 금액은 5조8000억원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도 1.54억원에 불과합니다.

3⃣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지수

조선비즈 기사는 정부의 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8월말 기준 본원통화는 266조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누적 113조6000억이라는 금액은 본원통화에 비하면 2.2%로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출저:엠브레인/n=2000명(2017.04)

3□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지수

조선비즈 기사는 정부의 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8월말 기준 본원통화는 266조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누적 113조6000억이라는 금액은 본원통화에 비하면 2.2%로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5조8000억원은 본원통화에 비하면 2.2%로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4□ 연준도 비슷한 정책을 펼쳤

양영빈 기자는 연준도 금융위
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대출이

결론적으로, 조선비즈 기사는

양영빈 기자는 연준도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 228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선비즈 기사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대출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조선비즈 기사는 정부의 대출 규모를 과장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영빈 기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누적 대출금은 의미가 없고 이자율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지수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경제 기사를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누적 대출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이자율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지수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경제 기사를 읽으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저:엠브레인/n=2000명(2017.04)

STEP 02

시희

고마워. 요점 정리가 잘된 것 같애. 그런데 조금더 욕심을 내보자. 나는 이 내용을 경제지식이 거의 없는 중학생 조카에게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한국(south korea)에서는 보통, '쉽게 설명한다=중학교 2학년 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라고 표현하기도 해. 중학교 2학년 2학생 알아듣기 쉬운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레벨 체크를 한 뒤, 위에 기사 내용을 그들 수준에 맞제끔 다시 해설을 해주면 좋겠어

다른 답안 보기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아듣기 쉬운 수준의 경제 지식을 갖추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적 대출금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때 빌린 돈을 누적 대출금이라고 합니다. 조선비즈 기사는 정부의 누적 대출금이 113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대출금은 정부가 실제로 빌린 돈의 총액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일 1조원씩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고 가

출저:엠브레인/n=2000명(2017.04)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아듣기 쉬운 수준의 경제 지식을 갖추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적 대출금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때 빌린 돈을 누적 대출금이라고 합니다. 조선비즈 기사는 정부의 누적 대출금이 113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대출금은 정부가 실제로 빌린 돈의 총액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일 1조원씩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고 가정한다면, 1년 동안 누적 대출금은 113조원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빌린 돈은 1조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그래서 누적 대출금은 정부가 실제로 빌린 돈의 총액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알고 싶다면, 평균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저:엠브레인/n=2000명(2017.04)

| 시사점 |

데이터 분석에 대한
치우치지 않은 잣대를 가진
인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린다면

더 유익하게 **생성형 AI**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Fin.